

장백산천지

제 233 호

2014 년 6 월 25 일

수요일

당신에게 행운을 향해 날아가는 한 쌍의 '날개'를 드려요

대륙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2013년 12월 15일 오후 6시 50분, 광주시 월수 구 기의로 217호 건업빌딩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장에는 짙은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저녁 10시 17분에 이르렀을 때 빌딩은 거의 다 타버렸다.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말하기를 빌딩동쪽 높은 곳에서 누군가 창가에서 손전등으로 구원요청 신호를 보냈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나는 마치 창문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현장에서 친히 보는 듯 했다. 나는 그 시각 그들에게 한 쌍의 날개가 있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나는 2년 전에 있었던 천진 래덕(萊德) 큰 화재중의 기적이 떠올랐다. 2012년 6월 30일, 한 마을에서 온 10여명의 래덕 빌딩의 직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출근하지 않게 되어 그날 일어난 화재를

피할 수 있었다. 현지 주민 샤오후이(小慧)도 그날 원래 래덕 쇼핑광장으로 쇼핑하러 가려던 중에 갑자기 가족들이 불러 중도에서 되돌아갔다. 화재가 발생한 후 그는 천만다행으로 느꼈다. 래덕 빌딩 직원 따밍(大明)은 불 속에서 허둥지둥 대다가 갑자기 '5층에 안전 통로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리하여 그는 10여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5층으로 갔는데 과연 거기서 안전하게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렇게도 운이 좋았을까? 원래 그 10여명의 직원들이 살고 있는 촌에서는 모두 '眞、善、忍 (쩐, 썬, 런)'을 믿고 있었으며, 샤오후이와 따밍도 모두 진상을 똑똑히 알고 이미 '3퇴'성명을 하였기에 행운아로 된 것이다.

친구여 당신에게 진상을 전할 때 꼭 받도록 하라. 그것은 행운을 향해 날아가는 한 쌍의 '날개'를 당신에게 달아 주는 것이다. (글/수저)

파룬궁 가까이 다가가다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 하며 1992년 5월 중국에서 전해 온 불가 상승의 수련대법이고, '眞、善、忍 (쩐, 썬, 런)'을 근본지도로 하며, 5조의 느슨하고 아름다운 공법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 **사람을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은 사람을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며 수련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힘써 '眞、善、忍 (쩐, 썬, 런)'의 표준에 따라 도덕수평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 수련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할 뿐더러 또한 사람을 성실, 선량, 관용, 평화롭게 변화시킨다.

●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1998년 국가체육 총국은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둥에서 5번을 거쳐 3만

5천명을 조사하였다. 결국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총 유효률은 97.9%로 나타났다.

● **사회에 유익하다** 1998년 하반기, 부분 인대 정년퇴직 로간부들이 몇 달간 파룬궁에 대한 조사에서 "파룬궁은 나라와 인민에게 백가지 리로울 뿐 한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말에 정치국에 조사보고를 바쳤다.

●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고 세계 인민의 애대와 존경을 받고 있다. 인류 심신건강에 대한 걸출한 공헌에 파룬따파는 여러 나라 정부의 표창, 지지의안, 지지 편지 3000여개를 수여 받았다.



밍◎후이◎단◎신

▲2014년 5월 17일, 러시아 파룬궁수련생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모스크바 승리공원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하다 (사진)

▲2014년 5월, 미국 미시간 주 상원의원 짐·몰타(Jim Marleau)는 특별한 감사편지를 발부해 '法輪大法(파룬따파)'가 독특하고 가치가 있는 이념을 사회구역에 가져다 준데 감사를 표시하고, 사람들이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더욱 건강하고 유쾌하고 남을 위하게 된 변화를 찬송하였다.

▲2014년 5월 31일,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파룬궁수련생은 사탕수수축제(甘蔗节)행진활동에 참가해 '최우수문화상'과 '전체행진최우수상'을 받았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해, 중국 당산지구에서 4688명 사람들이 서명으로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에게서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한 중공의 죄행을 반대했다.



긴 칼이 머리위에 있을 때 기적처럼 위험에서 벗어나다

【명후이왕】『운남 투고』중외를 놀라운 곤명(昆明) “3·1”비참한 사건은 지금 말해도 사람을 소름돋치게 한다. 하지만 칼과 검은 무정해도 하늘이 보고 있으니, 진상을 명백히 알고 있는 선량한 사람은 대법 사부님의 보호를 받고 생사검난을 피면했다.

● 긴 칼이 머리위에 있을 때 기적처럼 위험에서 벗어나다

곤명시(昆明市) 석림현(石林县)의 60여세인 아이렌 (爱莲가명) 녀사는 3월 1일 저녁 방금 곤명 기차역에서 손녀를 기차에 앉혀 보냈다. 손녀가 차에 오른 후 그녀가 되돌아서 얼마 되지 않아 놀랍고 처참한 무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무슨 일이 발생하였지를 알기도 전에 기다란 칼이 이미 그녀의 머리위에 있었다. 당시 이미 놀라 멍해진 그녀는 단지 본능적으로 두 손을 합십하였다……얼마 지났는지도 모르게 그녀가 눈을 뜨고 보니 눈앞에는 이미 숨을 거둔 4사람이 피자국속에 누워 있었다.

이 겁난을 겪은 아이렌 녀사는 집에 돌아온지 몇일 지났지만 여전히 부들부들 떨었으며 그 경력을 말할 때면 그 피비린 공포스러운 정경이 여전히 눈앞에 섰다. 동시 그녀는 그녀를 위험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도생하게 한 파룬궁 수련생에 매우 감격했다.

원래 일찍 2007년, 당시 파룬궁 수련생은 아이렌녀사의 집에 와서 그 녀의 시어머니한테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녀도 곁에

서 인정하였다. 바로 그녀가 대법의 진상을 명백히 알았기에 위험에 부딪혔을 때 본능적으로 대법의 보호를 생각하게 되어 생사검난을 피하게 된 것이다.

● 전 후 몇분 사이 두가지 부동한 운명

곤명에 거주하고 있는 따용 (大勇가명) 은 “3·1”참사안건 몇일 전 파룬궁 수련생을 만나 파룬궁 진상을 명백히 알고 아울러 3퇴성명을 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또 그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면 복보를 얻게 되니 “파룬따파호오, 썬썬런호오”를 기억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매우 접수했다.

2014년 3월 1일 저녁, 따용은 곤명기차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

며 먼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대합실에서 어찌하여도 앉아 있을 수 없고 바로 화장실로 가고 싶어 그는 화장실로 갔다. 몇분 후 그는 밖에서 전해오는 비명소리, 달리면서 부딪치는 란잡한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눈앞의 정경에 놀라 멍해졌다 : 온통 시체인 피바다로 되었다! 방금 그와 한줄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생존하지 못했다! 따용은 그에게 진상을 말해준 파룬궁 수련생을 찾아 격동된 나머지 눈물을 머금고 : “당신이 한 말은 정말입니다! 파룬궁이 말한 것은 정말입니다!”고 말했다.

너무나 비슷한 2000년 후에 또 다시 일어난 큰 불

2000년 전 고대 로마 황제 네로(尼祿)는 사람을 시켜 성에 불을 지른 다음 기독교 신도들에게 누명을 씌워 사람들의 증오를 불러 일으켜 기독교 신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 미친개에게 물려 죽게 하고, 기둥에 못 박아서 초로 삼아 태우는 등……혹형으로 박해했다. 이러한 짓들은 천지의 분노를 일으켜 한시기 흥성했던 로마제국은 4차례 역병을 경과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2000년 후인 오늘, 장쩌민과 뤼간 등이 도연하여 만든 ‘천안문 분실자살’이란 조작극은 파룬궁에 누명을

씌워 민중들이 파룬궁을 증오하도록 선동했다. 오직 거짓을 꿰뚫어 보고 진상을 똑똑히 안 민중만이 고대 로마인보다 더욱 꿈직한 결과를 보지 않을 것이다.

강도연:

당이 분실자살 하라면 분실자살 한다



연변박해소식

연변 조선족 리정옥은 재차 억울하게 불법판결 받고 길림성 장춘여자감옥으로 압송되다

도문시석현의 오련화는 근 일년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48세의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오련화는 2013년 7월 12일에 납치되어 오늘까지 도문 안산구치소에 감금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남편은 세상 뜨고 자식은 외지에 있기에 상세한 정황은 요해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4월 2일 아침 6시 30분, 길림성 연길시 국보대대의 팽보(方波), 정철수, 이성철 등 악경들이 52세의 리정옥 부모의 집에 뛰어 들어 파룬궁수련생 리정옥을 납치했다. 악경들은 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등 사유물품을 강탈했고, 아들이 번 돈과 생활비인 현금 5천원, 2개의 저금통장등을 강탈해갔다. 2014년 5

월 15일, 리정옥은 억울하게 불법적인 4년 판결을 받고 장춘 여자감옥으로 압송되어 계속 박해받고 있다.

리정옥은 2003년 12월 16일에 불법적인 2년 노동교양을 받고, 장춘 헤이쭈이쯔 노동교양소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았었고, 2005년 9월 23일에 룡정현 법원에서 불법적인 3년 형을 받았었다.